

폐허속의 글쓰기, 겨울시단의 풍경

비평가가 읽어본 이 계절의 시집들

신현철

문학평론가

우리 시대의 시인은 갇혀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염되지 않은, 나의 주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니,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주체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진정한 나의 모습은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만 드러날 뿐이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순결한 주체의 상태를 경험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주체가 보존되는 순간, 주체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타자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순결한 존재는 의심을 받는다. 타자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타자의 존재를 자신의 내부로 수용하면서부터 존재의 결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성하게 자라나는 '부재'의 존재는 주체를 타자의 영역으로 던진다. 나는 밀려난다. 나의 자리는 지워지고, 타자의 그늘이 들어선다.

하지만 타자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우리는, 주체였던 나 역시 그 타자의 일부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타자의 존재들이다. 타자에 의한 시쓰기는 언제나 오염되어 있다. 시는 오염의 문화이다. 타락의 정점에 시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죽음의 냄새 가득한 검은 길

이하석의 시집 「촉백나무 울타리」, 이재무의 시집 「벌초」, 이윤학의 시집 「먼지의 집」, 장석남의 시집 「별의 감옥」, 양애경의 시집 「사랑의 예감」, 김영석의 시집 「썩지 않는 슬픔」에는 오염의 표지가 깃들여 있다. 일상의 폐허를 지탱하고 있는 이들의 시들은, 현실의 공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타락의 의미를 묻고 있다.

이들의 시들은 현실 속의 그 어느 장소에도 속해 있지 않다. 한 사회에 속하는 일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욕망의 관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압의 체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죽음의 냄새 가득한 검은 길이 우리에게 일방통행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은, 언제나 어둠의 털을 곤두세우고 출몰한다.

이하석의 시들은 단단하고 굳은 광물성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이른바 정신의 폐허 위에 쌓아올려진 현대사회를, 생명력을 상실한 금속성의 물질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거세당한 생명력은 서서히 소멸의 전기를 맞는다. 이번에 발간된 「촉백나무 울타리」는 이하석의 네번째 시집이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절망과 죽음의 무게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는 식물성 이미지를 빌려온다. 단지 빌려와서 사용할 뿐이다.

물은 소용돌이 치지만
강은 흘러가지 않는다.
부패한 냄새를 감춘 고요한 투영만이 있다.
하늘과
구름, 그리고 폭풍의 별들이 비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면의 현상일 뿐이다.
물 아래에는 죽음이 있다.

—「주검」, 이하석

도시의 강은 흘러가지 않는다. 흐름을 그쳐 버렸기 때문이다. 흐르지 않는 강은, 당연히 죽음의 강이다. 강의 표면에는 여전히 하늘과 구름, 폭풍의 별들이 어른거리지만, 강의 내부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 죽음이 음습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불임의 시대, 황폐한 시대에 주검이 자라나는 도시의 강은 또다른 무덤이다. 바다로의 흐름을 거세당한 시대의 강에서는 더이상 어떠한 생명도 자라나지 않는다. 생명의 강물은 수태의 힘을 잃어버렸다. 어두운 무덤 아래 죽음이 묻히고 단혀진다. 무덤의 힘은 광물처럼 견고하다. 우리 시대의 강물은 열리지 않는 땅, 열리지 않는 문이다.

변화된 현실은 달라진 서정을 요구한다. 타락한 시대의 자연은, 이 도시의 내부에서 자라난다. 강물은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그 강물의 근원은 더이상 깊은 산 속의 웅덩이 샘이 아닌 것이다. 도시의 하수구가 강물의 수원지를 형성한다. 폐차들이 쌓여서 도시의 산을 이루고 있다. 산은, 쌓여가는 쓰레기의 높이만큼 자라난다.

이번의 시집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식물성 이미지는 달라진 서정의 모습을 날카롭게 설명하고 있다. 폐차장에 버려진 쇠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녹물 사이에 피어난 보랏빛 달개비꽃은 단단한 광물성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하석은 언제나



견고한 사물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의 희망은 '무덤'의 희망이다.

이재무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내밀한 대상으로서의 서정이다. 자연은 시인과 분리된 채 존재하는, 바라봄의 방식이 아니다. 이재무와 자연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일체감의 형식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몸 속으로 자라나는 오동나무 한 그루"(「오동나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은 시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이다. 오동나무는 생명과 죽음을 함께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주체를 들여다보는 내면의 성찰 역시 자연과의 관계에서 스며나온다. 「참새와 삼태미」에서 보이는 것처럼, 닭장 둘레나 허청 구석 자리에 설치해놓은 삼태미덧에, 범사에 눈이 멀어서 잡히게 되는 참새들을 바라보면서 이재무는 "반성도 동요도 없이/일상을 사는 것은 아닐까"하는 자성의 물음을 던진다.

이재무의 시들은 암반 같은 딱딱한 어둠이 우리를 거둬 삼키어오는 현실 속에서도 자연과의 친화력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는 가치의 절대성이 강요되는 시대의 현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과 현실을 매개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애정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별다른 반성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이재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숨겨져 있던, 우리의 의식에서 잊혀져 있던 자연의 비밀이 새롭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현상적인 사물의 의미 뒤편에 잠자고 있던 건강한 원형의 세계가, 시인의

애정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내보이는 것이다.

나무들도 생존을 위한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지만, 그것은 타락의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한 다툼이 아니다. 앞산을 밟으면서 다가오는 햇살을 먼저 가슴에 안으려고 날마나 손을 뻗고 발버둥을 치면서 싸움에 열중하지만, 그 싸움은 언제나 '아름다운 싸움'이다. 살아 있는 것들이 어우러지는 무리춤인 것이다. 현실의 불화는, 자연의 완전한 복원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 그는 타락한 일상의 모습을 다시 정확할 수 있는 '자연 속의 현실'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무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의 연원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자연 복원 통해 현실불화 해소

이윤학의 시에는 낮은 슬픔의 숨결이 엿보여 있다. 그 슬픔의 연원은 "걸어 온 길이 끊어지는 곳"(「판교리 3」)이다.

차들은 차가운 빛을 무한정 감추고 있다.
그러나 차들 속은 캄캄한 침묵이다. 물이
펼칠 끓어넘치고
있다. 침묵은 불덩어리다. 나는 오랫동안
불덩이를 가두고
참아왔다. 걸어온 길이 끊어지는 곳.
가뭇의 鹽田이 눈앞에 펼쳐놓는, 아픈 순간
들...

—「판교리 3」, 이윤학

너에게로 가는 길은, 내가 거치면서 지나가

야만 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너에게로 향하는 나의 걸음에 의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자유로움을 박탈당한다. 언제나 길은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이 길의 운명이다.

하지만 끊어지는 길은, 나의 모든 희망을 삼킨다. 길 위의 폐허를 따라서 걸어간 내가 멈추는 지점은, 돌아갈 곳이 없는 죽음의 장소이다. 그의 시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죽음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죽음은, 연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진실한 존재를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로 걸어가는 '길' 위에는 "차가운 빛을 무한정 감추고 있"는 차들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차가운 돌은, 죽음의 현존을 실제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죽음의 현존을 드러내던 차들은, 동시에 재생에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부스러진 차들 같은, 가루 소금이 되고 싶다./門 없는 상처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걸은 길이 끊어지는 순간, 이운학은 현실 속으로의 재생을 위하여 가사의 상태를 선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출구가 없는 먼지의 집을 견딜 수 있으며, 새로운 재생의 주문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언뜻 유약하게 비치는 이운학의 시에는 이와 같이 거대한 의식이 잠들어 있다. 연체의 껍질 속에는 죽음을 건디는 차들의 힘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장석남의 시집 '별의 감옥'의 중심에는 그리움이 있다. 그리움은 그의 시에서 지배적인 이미지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리움의 대상은

별처럼 먼 곳에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감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말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 모든 것은 의심되어졌으며, 모든 것은 오염이 되었다. 결국 우리가 기대어 설 수 있는 자리는 모든 원형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지점을 향한 향수의 시선인 것이다.

"여자를 삼았으면/꽃의 향기랑 몸을 섞었으면 나는/몸을 섞고 가버렸으면/나비처럼"(「꽃말을 바라보는 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는 '별의 감옥'에서 원형과의 합일을 꿈꾼다. 그 합일은 녹아서 "이슬비가 되어가며/이슬비가 많은 곳으로 걷는다"에서처럼 타자의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들은 몹시 쓸쓸하다. 그러한 합일의 방식은 죽음의 의미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나 그女子에게 가 피어나겠네"(「지나갈 어느날」)는 현실 속의 '나'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타자를 향한 기원이다. 나는 쓰다 남은 희망처럼, "환한 봉분"과 "흰 무덤" 속으로 녹아들어가다. 무덤 속의 기억은 아늑하고 환하다.

꽃빛 같은 모래 위 해안의 신기루, 어딘가로
달을 바다가 담긴
물에 손을 넣으면 모래가 파삭 부서지지
그래도 삶은 아름답고
널 안으면 따뜻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모래장난」, 양애경

양애경의 시들은 작지만, 넓은 공간을 담고 있다. 제멋대로 흘러가는 물줄기 같은 사랑이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위를 흠뻑 젖게 만들지만 양애경은 결코 사랑을 놓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에 길들여지기를 기다리며, 순교자처럼 고통이 물로 변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타락한 사회의 정점에서 양애경은 아주 조용했고 텅 비어 있다. 마치 폭풍의 소용돌이로부터 천천히 가운데의 평정을 향하여 물러가는 비류처럼 자신의 무게를 비워내고 있다. 비워지는 무게는 욕망의 무게이다. 양애경의 욕망은 가뭄이다.

시퍼런 절망 지나온 부정의 정신

「씩지 않는 슬픔」은 이십여년만에 처음으로 퍼내는 김영석 시인의 첫시집이다. 등단한지 몇 해가 지나지도 않아서 여러 권의 시집을 발간하는, 경박한 상업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출간된 그의 시집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씩지 않는 슬픔」은 김영석이 만들어낸 '시의 집'인 것이다. 어떤 시를 살펴보다라도 섬세할 정도로 투명한 시적 자아의 여과없이 그대로 발화된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래오래 흐린 빛을 뿌리며 결코 삭아버리지 않는 슬픔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시퍼런 절망을 지나오는 부정의 정신이다.

노여움의 검은 피

이 시퍼런 절망을 위하여
얼어붙은 들판의 한쪽 끝에서
이제는
패배의 따뜻한 손을 잡고
나는 홀로 일어선다.

—「빈 들판 하나」, 김영석

그가 부정하고 있는 것은 「현장」이나 「파도」 등의 시들에서 보여지는 인간성 상실의 현장이다. 강렬한 시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인은, 나약하게 가라앉거나 쉽게 끊어오르지 않는다. 가장 커다란 고통의 근원을 캐내고 있으면서도 분노의 절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잠언」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우화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의 시들에는 언제나 오랫동안 인고하면서 다듬어온 정신의 결정이 배어 있다. 패배의 '따뜻한' 손을 잡고 홀로 일어서는 그는, 온몸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살아 있다. 내가 살아 있다.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다. 그의 시가 닿는 곳은 적박함을 밀어내는 우리의 '살아있음'이다.

서양문예사조

신락균의 7인 공편서, 신국판, 392면, 7,000원

본서의 서술방향은 기존의 문예사조를 단지 시대별로 소개함에 그치지 않고 각 사조의 문학원리에 관심을 두고 작품성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책은 프랑스 문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프랑스 문학이 르네상스 문화의 전수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대문학은 물론 현대문학의 위치를 가름할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한 것이 강점이다.

현대시론

김영철 저, 신국판, 360면, 7,500원

이 책의 집필은 시를 좋아하고, 시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이론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특히 서구이론을 우리의 문학풍토에 맞게, 즉 서구이론의 생경함을 벗어나 우리 시의 해석과 이해에 적합한 이론의 수용과 적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작품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위한 이론보다는 작품이 전체된 이론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필자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원예학원론

김중천 저, 신국판, 양장, 322면, 8,500원

원예작물은 종류도 많고 또 모두가 집약적인 관리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한편 수익성도 높은 작물이다. 재배 기술면에서 일반작물과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술향상은 튼튼한 기초지식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은 수익증대와 직결된다.

이 책은 원예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학문적인 기초지식과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게 하였다.

林董(한아시)秘密回顧錄

A.M.Pooley 엮음 신복룡·나홍주 역주, 3,800원

이제까지 대한제국멸망사의 외교적 배경은 1905년의 태프트-桂太郎 密約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비록은 일본의 조선병합의 꿈이 이미 對英외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영·일 동맹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 영·일 동맹의 계약 당사자였던 林董의 말을 통해서 당시 국제사회에서 조선이 어떻게 요리되었는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신국대학교출판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도서주문 450-3893 FAX: 457-7202